

〈이적선취초혁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의

답번서담(答蕃書談) 연구

—그와 관련한 한·중 간 역사·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박상석*

— <차례> —

1. 서론
2. 답번서담(答蕃書談)의 변천과 전파
 - 1) 중국의 답번서담
 - 2) 한국의 답번서담
3. <이적선취초혁만서> 답번서담의 쟁점
 - 1) [中] 대고구려전(對高句麗戰)의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가상의 역사
 - 2) [韓] 중국의 발해 사관에 맞선 대응의 방편
4. 결론

〈국문초록〉

당(唐)의 이백이 ‘번국에 답하는 글을 초했다[草答蕃書]’는 간결한 내용이 여러 문헌에 전하다가 명말(明末)의 소설집 『경세통언(警世通言)』과 『금고기관(今古奇觀)』에 공히 수록된 <이적선취초혁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에 와서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나관중(羅貫中)의 『수당양조사전(隋唐兩朝史傳)』에서 이미 그 같은 소설적 형상화가 이뤄졌고, <이적선취초혁만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번국을 거란에서 발해로 바꾼 것임을 확인했다. 그 내용을 보면, 발해 사신이 자국 문자로 작성한 국서를 전하며 당이 점령한 영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이백이 역시 발해 문자로 답서인 ‘혁만서(嚇蠻書)’를 써서 그 뜻을 꺾는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왜 번국을 발해로 설정한 것일까? 이 소설 속에서 발해가 당에 요구한 것은 고구려의 옛 땅이고, 발해 사신의 내조에 당나라 조정에서는 태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종(太宗)이 고구려 정벌에서 겪은 고난과 좌절을 상기하며, 이백은 ‘혁만서’에서 발해가 결국은 당에 멸망한 고구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의도는 중국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수차례 실패했던 콤플렉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자 이백의 출사(出仕) 시기에 존립한 발해를 내세운 가상의 역사로써 해소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신채호(申采浩)를 비롯한 몇몇 한국 학자가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 그 가운데서 발해가 자국 문자로 당과 외교를 했다는 점을 들어 발해가 자주국이며 국력이 강성했다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발해가 당을 위협하는 국서를 보냈다는 그 내용이 사실적이지 않을뿐더러, 선학들의 시각과 달리 이는 결국 발해가 당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이다. 그보다는 중국인 스스로가 지은 작품에 고구려·발해 간의 밀접한 연관성 내지는 계승성에 대한 의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 고구려가 자주국으로서 당과 치열하게 경쟁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읽어 내는 것이 작품의 실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 고대사 인식을 정립(正立)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李謫仙醉草嚇蠻書, 警世通言, 今古奇觀, 答蕃書(和蕃書), 麗唐戰爭(高唐戰爭), 渤海, 東北工程

1. 서론

명나라 말기의 소설집인 『경세통언(警世通言)』과 『금고기관(今古奇觀)』에 공히 <이적선취초혁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라는 작품이 실려 있다. 조선에서도 『금고기관』이 널리 읽혔고, <이적선취초혁만서>만을 별도로 번역한 작품도 여럿 만들어졌다.

<이적선취초혁만서>는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에 관한 기존의 여러 이야기에 작자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그의 일대기 형식의

로 만든 소설이다. 우리가 <이적선취초혁만서>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이 이야기에 발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발해의 사신이 자국의 문서로 작성한 국서(國書)를 가지고 와서 당(唐)의 천자 현종(玄宗)에게 전하니 이백이 그것을 해독해 역시 발해 문자로 답서를 작성해 주어서 발해를 굴복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 발해와 관련해 고구려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해당 이야기에 우리의 고대 국가인 발해와 고구려에 대한 중국 측의 역사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또 신채호(申采浩)를 비롯한 한국의 학자들이 발해의 언어·역사와 관련해 특정한 관점에서 이 작품을 거론해 왔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인해 한반도 고대 국가에 대한 한·중 간 역사적 시각의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는 그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중요한 작품이 되겠다.

<이적선취초혁만서> 원작을 별도로 다루거나 앞에서 논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 작품 및 관련 자료에 접근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김영은 한국에서의 <이적선취초혁만서> 번역 필사본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새로 찾은 도쿄대 오구라(小倉) 문고 소장본과 단국대 소장본 1종의 국어학적 특징 및 번역상의 특징을 살폈다.¹⁾ 백화(白華) 양건식(梁建植)이 1931년도 『매일신보(每日申報)』에 『금고기관』의 이야기 중 네 편을 번역해 연재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번역인 <이백(李白)>이었다. 박상석은 이 『매일신보』 번역본의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이적선취초혁만서> 중의 발해를 비하하는 내용이 한국의 번역본에서 저항을 받은 예도 있으나 그런 현상이 후대에 와서야 소극적으로 이뤄졌음을 보

1) 김영, 「명대 백화단편소설 <李謫仙醉草嚇蠻書> 번역필사본에 대한 고찰」, 중국어 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106, 2017.

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해에 대한 학계와 대중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고, 발해를 향한 민족의식이 고구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²⁾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발해 관련 이야기는 『경세통언』에 와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부연한 것이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바이지만, 그 원형의 이야기에 이백이 ‘번국에 답하는 글을 초했다[草答蕃書]’는 말이 있고,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을 나타내므로, 이 이야기들을 ‘이백의 답변서담(答蕃書談)’으로 통칭할 수 있겠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발해 관련 이야기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이백의 답변서담이 어떤 변화를 거쳐 <이적선취초혁만서>에 이르렀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해당 서사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이백의 답변서담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선은 중국과 한국에서 이뤄진 답변서담의 전승 및 수용 양상을 살피고, 그 다음 두 나라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담이 담지하는 역사·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2. 답변서담(答蕃書談)의 변천과 전파

1) 중국의 답변서담

서론에서 말한 대로 <이적선취초혁만서> 이전에도 이백(701-762)이 외국의 국서(國書)에 답을 했다는 ‘답번서(答蕃書談)’가 존재했다. <이적

2) 박상석, 「白華 梁建植의 『新譯 今古奇觀』 연구」,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46, 2018.

선취초혁만서>의 발해 관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런 답변서담의 흐름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백의 답변서담군(答蕃書談群) 중에 시기가 가장 앞선 것으로 유전백(劉全白)이 쓴 <唐故翰林學士李君碣記>³⁾가 있다. 그 내용 중에 유전백이 어려서 이백과 알고 지냈으며, 비문을 쓴 것이 790년(貞元六年)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비문 가운데 “천보원년(天寶元年, 742)에 현종(玄宗)께서 한림대조(翰林待詔)를 맡기시어 이로 인하여 번국(蕃國)에 답하는 글을 짓고, 아울러 『선당홍유(宣唐鴻猷)』 일 편을 바쳤다. 황제께서 이를 중히 여기시어 윤고(綸誥, 詔書)의 직임을 맡기고자 하셨다.(天寶初, 元宗辟爲翰林待詔, 因爲和蕃書, 並上『宣唐鴻猷』一篇. 上重之, 欲以綸誥之任委之.)”라고 했다.

다음으로 범전정(范傳正)이 쓴 이백의 비문 <唐左拾遺翰林學士李公新墓碑>⁴⁾가 있다. 범전정은 이백이 죽은 지 50여 년 후인 당나라 헌종(憲宗) 원화연간(元和年間, 806-820)에 선주(宣州), 흡주(歙州), 지주(池州) 관찰사를 맡아 당도에 갔고, 당도 현령 제갈종(諸葛縱)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백의 무덤을 찾아내고 묘비를 세웠다고 한다.⁵⁾ 그 비문 중 답변서를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보원년에 금란전(金鑾殿)에 (이백을) 부르시어 현종께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가 맞으시며 동원공(東園公)과 기리계(綺里季)를 만난 듯이 하시며 당시의 일을 의논하셨다. 번국에 답하는 글을 초하니, 변론이 급히 흐르는 물과 같고

3) 『李太白集注』 卷31, 『文苑英華』 卷834, 『全蜀藝文志』 卷40 등에 수록.

4) 『李太白集注』 卷31, 『唐文粹』 卷58, 『全蜀藝文志』 卷47, 『文章辨體彙選』 卷669 등에 수록.

5) 안치(安旗) 저, 신하운·이창숙 역, 『(영원한 대자연인) 이백』, 이끝리오, 2004, 437쪽, 440쪽.

붓이 멈추지 않았다. 현종께서 이를 기뻐하여 사방 일 장(丈)의 보석 상에다 음식을 하사하고 손수 국을 끓여 주셨다.

天寶初, 召見於金鑾殿, 元宗明皇帝降輦步迎, 如見園·綺, 論當世務. 草答蕃書, 辯如懸河, 筆無停綴. 元宗嘉之, 以寶牀方丈, 賜食於前, 御手和羹.

이 유전백, 범정전의 비문에 기록된 내용이 이후 이백에 관한 여타 많은 문헌에 전재(轉載)되었다. 이들 문헌에는 이백이 ‘번국에 답하는 글을 썼다[爲和蕃書, 草答蕃書]’는 간략한 구절이 있으나, 그 번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극히 단편적인 이 ‘爲和蕃書’, ‘草答蕃書’의 언급이 명나라 말기의 <이적선취초혁만서>에 오면 번국이 발해로 특정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건으로 확장된다. <이적선취초혁만서>를 대상으로 한 중국 학자의 최근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부연은 이 작품의 편자인 풍몽룡이 유전백, 범정전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⁶⁾ 그런데 필자는 이백의 답변서 기록에 대한 이 같은 소설적 서사화가 그에 앞서 나관중(羅貫中)의 소설에서 이미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원말(元末)·명초(明初)의 인물 나관중이 지은 소설 『수당양조사전(隋唐兩朝史傳)』⁷⁾ 중 99회 ‘주위후예종즉위(誅韋后睿宗卽位)’의 후반부부

6) 二是在原有的傳說故事的基礎上大加生發鋪衍, 使之詳盡豐富, 繪聲繪色, 超越前說. 如李白醉草嚇蠻書之事, 劉全白在《唐故翰林學士李君碣記》已有“天寶初, 玄宗辟爲翰林待詔, 因爲和蕃書”之記載, 範傳正之《唐左拾遺翰林學士李公新墓碑》也有“論當世務, 草答蕃書, 辯如懸河, 筆不停綴”的描述, 但都比較簡單. …… 但無論是“醉草嚇蠻書”還是“力士脫靴”的故事, 在明代以前還沒有人大加鋪衍, 詳盡描繪, 大多只是提及或高度贊頌, 而馮夢龍在這篇小說中卻充分發揚小說這種文學形式的特長, 極盡鋪張描寫之能事, 展現每一個具體場景和細節, 將人物寫得神采飛揚. (何念龍, 『簡論《李謫仙醉草嚇蠻書》的文化意義』, 『樂山師範學院學報』第22卷 第8期, 2007, 12面)

7) 東原 貫中羅本 編輯, 西蜀 升菴楊慎 批評, 『鐫楊升菴批點隋唐兩朝史傳』, 卷10

터 100회 ‘이태백입소번서(李太白立掃番書)’, 101회 ‘화음현이백도기라(華陰縣李白倒騎驪)’에 걸쳐서 답변서담을 포함한, 이백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란국(契丹國) 사신이 와서 당 현종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거란 문자로 되어 있어 아무도 읽지 못했다. 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하내간(賀內幹)이 번서에 답할 자로 이백을 추천하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면죽현(綿竹縣)의 사녀(使女)가 이백을 낳고 죽어 현령 하지장(賀知章)이 그를 거두 키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백이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양국충(楊國忠)과 고력사(高力士)가 면접에서 낙방시켜 지금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백은 하내간의 간청으로 현종을 배알한다. 이백이 거란의 조서를 낭독하니, 그 내용은 중화가 거란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중원을 정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백이 다음날 답서를 써서 거란 왕을 꾸짖겠다고 하자 현종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이백이 대취하여 현종이 후궁에서 쉬게 했다. 다음날 이백이 깨어서 환관에게 황제가 직접 끓인 국을 먹고 싶다고 하자 실제로 현종이 친히 국을 끓여 보냈다. 이백이 거란 사신이 와 있는 어전(御殿)으로 나아가 현종에게 청해서 양국충, 고력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먹을 갈고 신을 벗기게 했다. 이백이 거란 왕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준열한 답서를 써서 주니 거란 사신이 두려워하며 그것을 받아들고 떠나갔다.

현종이 관직을 내리려 했으나 이백은 강호를 유람하며 지내기를 희망했다. 이에 현종은 이백을 만나면 누구든 술을 대접하고, 관아에서는 돈을 지급하라는 금패(金牌)를 하사했다. 이백은 면죽현청(綿竹縣廳)으로 가서 하지장을 만난 뒤에 또 길을 떠났다. 이백이 유람을 하다가 화음현(華陰縣)에 이르러 현령 서

99회 ‘誅韋后睿宗即位’, 100회 ‘李太白立掃番書’, 卷11 101회 ‘華陰縣李白倒騎驪’
[古本小説集成 編委會 編, (『古本小説集成』 347卷) 『隋唐兩朝史傳』 下, 上海古籍出版社, 1990, 1159-1197面]

문헌(徐文擘)이 학정(虐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이백이 술에 취해 노새를 타고 현청 앞으로 가니 서문헌이 그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다. 이백이 공초장(供招狀)에 번국에 답서를 쓴 것 등 조정에서 겪은 일을 적어 서문헌에게 주니 현령 이하 모든 관원들이 용서를 빌었다. 이백이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차에 사자(使者)가 와서 입궐하라는 황제의 명을 전했다.

이백이 황도(皇都)에 머물며 현종과 조석으로 연회를 즐겼다. 그리고 교방(敎坊)을 열어 이백에게 그곳에서 속악(俗樂)을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안록산(安祿山)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인용문 중의 굵은 글씨에서 보듯 『수당양조사전』에서는 이전 문헌에서 ‘爲和蕃書’ 혹은 ‘草答蕃書’ 등의 단편적 언급에 불과했던 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했으며, 그것을 이백 이야기의 중심 사건으로 만들었다. 당에 국서를 보내온 나라를 거란으로 설정했고, 그 국서의 내용은 당에 항복을 요구하며 전쟁으로 위협을 하는 것으로 했다. 이것이 거란 문자로 작성되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이백이 해독하여 역시 거란 문자로 답서를 작성해 상대를 제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중심 사건에 몇 가지 세부 사건을 결부시켰다. 즉 이백이 과거에 응시했으나 양국충과 고력사로 인해 낙방을 했다가, 이백이 천자 앞에서 답편서를 쓰면서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 신발을 벗기고 먹을 갈게 하여 복수를 한다. 그리고 천자가 베풀어 준 잔치에서 이백이 대취해 거란에 답서를 쓰는 날 술에서 깨지 못하자 천자가 손수 국을 끓여 준다. 또 화음현에 가서 답편서 썼던 일 등을 공초장에 적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 부정한 관리를 혼내 준다. 이 부차적인 사건들은 이백에 관한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일화로 이전부터 전해지던 것⁸⁾을 적절히 구체화하고 변형하여

8) 이 일화들이 전하는 여러 문헌 중 하나씩만 예로 들어 본다. 천자가 이백에게 국을 끓여 준 이야기는 앞에 인용한 범전정의 비문에서 이미 보았다.

답변서 이야기와 연결시킨 것이다.

이후 명나라 천계연간(天啓年間, 1621-1627)에 풍몽룡(馮夢龍)이 엮은 소설집 『경세통언(警世通言)』의 9권(卷)에 <이적선취초혁만서>가 수록되었고, 또 이 작품이 승정연간(崇禎年間, 1628-1644)에 포옹노인(抱甕老人)이 편찬한 소설집 『금고기관(今古奇觀)』의 6권에도 똑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전제되었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줄거리를 정리해 앞서 본 『수당양조사전』의 이백 관련 이야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모친이 태백성(太白星)을 품는 태몽을 꾸어 이백(李白)이 태어나니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이적선(李謫仙)이라 불렀다.

오정주(烏程酒)란 술이 맛있다는 소리에 이백이 불원천리하고 술집을 찾았다가 가섭사마(迦葉司馬)를 만나 친분을 맺고 그의 권유를 따라 벼슬에 추천되길 바라며 장안으로 간다. 이백이 장안에 가서 한림학사 하지장을 만나 결의형제를 맺었고, 과거(科擧) 시기가 이르매 하지장이 시관(試官)인 양국충(楊國

이백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져 현종께서 편전에 불러다 보시니, 기운이 뛰어나고, 당당하기가 노을이 드리운 것과 같았다. 상이 천자의 지위를 잊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발을 들이라 명하였다. 이백이 고력사에게 발을 펴며 “신발을 벗기라.” 하니 력사가 기운이 꺾여 급히 신을 벗겼다. [李白名播海內, 玄宗於便殿召見, 神氣高朗, 軒軒然若霞舉. 上不覺亡萬乘之尊, 因命納履, 白遂展足與高力士曰, “去靴.” 力士失勢, 遽爲脫之. (『西陽雜俎』前集 卷之十二 <語資>)]

당나라의 이백이 ... 화음현을 지나게 되었다. ... 이백이 술김에 나귀를 타고 고을에 들어왔다. 수령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하여서 아전에게 끌고 오도록 명했다. ... 수령이 공초하기를 명하니 태백이 이름은 쓰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일찍이 천자의 수건으로 침을 닦고, 천자가 손수 국을 끓이시며, 고력사가 신을 벗기고, 귀비가 벼루를 받들었노라. 천자의 문전에서 말 달리는 게 용납되었는데, 화음현 안에서는 나귀 타는 게 허락되지 않는구나.” 수령이 보고서 크게 놀라 일어나서 부끄러이 사죄했다. [唐李白 … 過華陰縣 … 太白乘醉跨驢入縣內, 宰不知, 遂怒命吏引來 … 宰命供, 太白不書姓名, 只云. “曾得龍巾拭唾, 御手調羹, 力士抹靴, 貴妃捧硯. 天子門前, 尙容吾走馬, 華陰縣裏, 不許我騎驢.” 宰見大驚, 起愧謝損曰 … (『青瑣高議』後集 卷之二 <李太白-跨驢入華陰縣內>)]

忠)과 고력사(高力士)에게 전하는 추천의 서찰을 써서 주었는데, 뇌물 없이 편지만 보낸 것을 도리어 쾌심히 여긴 두 사람은 ‘이백에게 먹이나 갈게 하겠다, 신이나 벗기게 하겠다’ 하며 그를 내쫓았다.

일 년 후 외국 사신이 와서 그 나라 문자로 된 국서를 올리는데 어떤 신하도 읽지를 못하니, 현종(玄宗)이 진노하여 시일 내에 그 글을 읽어 내지 못하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 이백이 이국의 문자를 읽을 수 있음을 하지장이 알고서 천자로 하여금 그를 부르게 하니, 이백이 사양하다 진사(進士)를 제수받고 천자를 알현한다. 이백이 만조백관 앞에서 이국의 국서를 낭독하니, 그것은 발해의 왕이 당 천자에게 보낸 것으로 당이 차지한 고구려 땅을 자신에게 내놓지 않으면 당을 정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근심하는 천자에게 이백이 발해의 문자로 답서를 쓰겠다고 한다. 천자가 이백에게 한림학사를 제수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더니 이백이 대취하여 천자가 그를 어전(御殿)에서 재우게 하고, 다음날에는 생선국을 끓여 오게 하여 손수 젓가락으로 저어 이백에게 마시게 했다. 이백이 어전(御殿)에 나아가 답서의 작성을 준비하면서 천자에게 청하여 양국층에게는 옆에서 먹을 갈게 하고, 고력사에게는 자기 신발을 벗기게 하여 전날의 보복을 했다. 발해 사신은 이백이 발해를 꾸짖는 답서를 낭독하는 소리와 그가 천상 신선이란 말을 듣고서 귀국해 자기 국왕에게 전하니, 발해에서 당에 항서를 올려 매년 공물을 보내고 내조(來朝)하기로 했다.

장군 곽자의(郭子儀)가 죄를 얻어 참수당하게 된 것을 이백이 천자에게 주청하여 사면시켜 주었다. 현종이 양귀비와 더불어 침향정(沈香亭)에서 모란을 감상하다가 이원(梨園)의 장(長) 이구년(李龜年)으로 하여금 이백을 불러오게 하니, 이백이 장안 거리의 주루(酒樓)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말에 실린 채로 궁에 들어와서 청평조(淸平調) 세 수를 지어 바쳤다. 고력사가 전날의 양값음을 하고자 양귀비에게 ‘이백이 청평조로 은근히 당신을 비방한 것’이라 모함하니, 양귀비가 이백을 미워하여 천자가 그를 가까이하지 못했다. 이백이 하지장, 이적지(李適之) 등과 ‘음중팔선(飲中八仙)’이 되어 술로 세월을 보낸다. 이백이 자

주 하직할 뜻을 고하자 천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어디서나 술을 마시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패(金牌)를 하사한다.

이백이 고향 금주(錦州)로 돌아와 부인 허씨와 반년을 지내다가 산수를 유람 하려고 길을 나섰다. 화음현(華陰縣)에 이르러 그곳 지현(知縣)의 탐학을 알고 부러 노새를 거꾸로 타고 관아 앞을 지나가며 지현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힌다. 그리고 ‘혁만서(嚇蠻書)’를 쓴 일 등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공장(供狀)을 써서 전하고 금패가 있음을 말하니, 그곳 지현은 물론 인근의 관리들까지 다 잘못을 고쳤다.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킨 와중에 영왕린(永王璘)이 모반하여 여산(廬山)에 피신해 있던 이백에게 억지로 관직을 주려 했으나 이백이 이를 거절해 막부(幕府)에 구류되었다. 광자의가 새로 천자에 즉위한 숙종(肅宗)의 명으로 영왕린을 토벌하고, 이백이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자신의 앞에 잡혀오자 천자에게 ‘혁만서’의 공을 주달하며 그를 구해냈다.

이백이 채석강(采石江)에 배를 띄우고 놀던 중 상제(上帝)의 부름을 받아 고래를 타고 승천했다. 천자가 이 일을 보고받고 채석산(采石山) 위에 이적선(李謫仙)의 사당을 짓게 했다. 송나라 때 한 서생이 달밤에 채석강을 건너다가 마주 오는 배에 탄 이와 창수(唱酬)했는데, 그가 이적선의 사당으로 들어가 사라진 것을 보고서 바로 이백임을 깨달은 일이 있었다.

『경세통언』의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도 답변서담(인용문의 굵은 글씨)이 작품의 중심이다.⁹⁾ 그리고 이 답변서담은 대체로 『수당양조사전』의 것을 수용해 부분적으로 변개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草

9) 답변서담이 전체 서사의 삼분을 일을 차지한다는 점, 제목부터가 답변서담의 요지를 압축한 ‘이적선취초혁만서’란 점, 작품의 시작과 끝인 개장시(開場詩)와 산장시(散場詩)에서도 답변서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뒤에 이백이 화음현 현령에게 구류되었다가 놓일 때나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혔다 놓일 때에도 혁만서를 작성한 공이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인용문의 밑줄 참고) 등에서 알 수 있다. (何念龍(2007), 앞의 논문, 12面 참고)

答蕃書' 등의 짤막한 기록을 토대로 『수당양조사전』에서 비로소 구체화한 내용들, 즉 국서를 가져온 나라가 특정된 점, 그 국서가 이국의 문자로 작성되어 아무도 읽지 못하는 것을 이백이 풀어 읽고 이국의 문자로 답서를 써 준 점, 답서를 쓸 때 이백이 양국충과 고력사로 하여금 먹을 갈고 신을 벗기게 한 점 등이 『경세통언』의 <이적선취초혁만서>에 그대로 수용되었다.¹⁰⁾ 그런 바탕 위에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고, 이 답변서답의 앞뒤로 더 많은 일화를 연결시켜 이백의 전기(傳記) 형식을 갖춘 한 편의 소설을 만든 것이다.¹¹⁾

『수당양조사전』과 비교해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답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거란이 발해로 바뀐 것, 그에 맞춰 양국(당·발해) 조서의 내용이 바뀐 것이다. 『경세통언』의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왜 이런 변경을 가했을까?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爲和蕃書', '草答蕃書' 등의 번국을 당시 당나라 주변의 어떤 나라로 특정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당양조사전』에서는 번국을 거란으로 설정했고, 『경세통언』에서는 발해로 설정했으며, 또 근래에 나온 안치(安旗)의 이백 평전¹²⁾에서는 토번으로 설정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발해를 답변서답의 번국으로 설정한 것은 역사적 상황에 상당히 어긋난다.

<이적선취초혁만서>는 이백이 현종을 알현하고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10) 물론 텍스트의 전송 망(網)에 『수당양조사전』과 『경세통언』 <이적선취초혁만서> 이외의 다른 텍스트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답이 기존 텍스트의 것을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11) 何念龍, 앞의 논문 참고. 여기서 풍몽룡이 전대부터 내려 온 이백의 전설(傳說), 고사(故事)를 집성하고 에피소드에 따라 다소간의 창작을 가미하여 <이적선취초혁만서>를 지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2) 안치(安旗)(2004), 앞의 책.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실화인 이 일이 있는 것은 2장 1절에 인용한 유전백의 비문 등에 기록된 대로 742년이며, 이때는 발해와 당이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당시 발해는 문왕(文王, 재위 737-793) 대흥무(大欽茂)의 통치 시기로, 737년에 문왕이 즉위하면서 이듬해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당은 문왕을 책봉하였다.¹³⁾ 이후 문왕의 56년 간 재위 기간 중 발해와 당의 외교 관계는 정상화되어 있었다.¹⁴⁾ 따라서 이백이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던 때에 선전 포고 식의 국서를 발해가 당에 보냈다는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거란이나 토번은 742년 당시 당과 대결 상태에 있어 답변서담의 번국이 될 역사적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¹⁵⁾ 발해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세통언』의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어째서 답변서담의 번국을 굳이 거란에서 발해로 바꾼 것일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담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문제로, 3장 1절에서 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13) 본래 발해와 당이 적대 관계에 있던 중 705년 당이 발해와 국교를 수립하려고 시도했으나 거란과 돌궐이 당의 변경을 침략하여 무산되었다가, 713년에 당이 대조영을 발해군왕(渤海郡王)에 책봉하면서 양국 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뒤에 흑수말갈과 당이 결탁하여 발해가 위기에 빠지자 732년 발해의 무왕(武王)이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했다. 그러나 발해의 지원 세력이었던 돌궐이 붕괴되고, 거란과 해(奚)가 당에 복속되며, 신라가 발해 공격을 시도하는 등 국제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해가 당에 대한 강경책을 포기하고 문왕이 즉위하면서 당과의 국교 수립을 도모한 것이다.

14)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3~15쪽, 134~143쪽.

15) 742년, 거란의 조오가한(阻午可汗)이 당에 투항해 현종에게서 이회수(李懷秀)란 중국식 이름을 하사받았으나 반 년만에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 인녹산과 수차례 교전했다. 토번은 일찍부터 석보성(石堡城)을 놓고 당과 군사적으로 충돌해 왔으며, 742년에도 그러했다. (인터넷 『百度百科』의 ‘李懷秀’, ‘石堡城’ 항목 참고)

2) 한국의 답변서담

19세기로부터 현대까지, 한국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 번역본이 여럿 나왔다. 그 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林慶業傳 李太白傳』¹⁶⁾(내제: 니태빅던, 니덕선취초하만서), 필사본 1책, 29장, 임인년¹⁷⁾ 정월,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소장
- ㄴ. 『이태백전』(내제: 리적선취초혁만서), 필사본 1책, 34장, 계해년¹⁸⁾,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소장
- ㄷ. 『니적선스적이라』(니적선이취초혁만서)¹⁹⁾, 필사본 1책, 38장, 일본 도쿄대학 오구라문고 소장²⁰⁾
- ㄹ. 『주중괴선리타빅실괴(酒中奇仙李太白實記)』, 활판본(구활자본), 世昌書館, 1915, 서강대도서관 소장²¹⁾
- ㅁ. 『諺漢文今古奇觀』, 新舊書林, 1918 중 3회 <리적선취초하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
- ㅂ. 城東閑人(梁建植) 역, <新譯今古奇觀>, 『매일신보』, 1931.2.14-4.4 중 2화 <李白>
- ㅅ. 梁白華(양건식) 述, <李白的 一生>, 『月刊野談』 7, 1935.4.²²⁾
- ㅇ. 조영암 역, 『(完譯) 今古奇觀』, 正音社, 1963 중 1회 <李謫仙記>
- ㅈ. 김용식 역, 『금고기관』, 미래문화사, 2003 중 3회 <이태백이 취중에 쓴

16) 『林慶業傳』 이면에 『李太白傳』을 필사함.

17) 1842년 혹은 1902년으로 추정 (김영(2017), 앞의 논문, 275~276쪽)

18) 1863년 혹은 1923년으로 추정 (위의 논문, 276쪽)

19) 표지에는 제목이 따로 없고 작품 첫 장에 제목이 '니적선스적이라'로, 부제가 '니적선이취초혁만서'로 되어 있다.

20) 필사 시기는 19세기 말~20세기 초로 추정 (위의 논문, 275쪽)

21) 같은 내용으로 활판을 다시 짜서 출판한 新舊書林·博聞書館本(1925), 滙東書館·新明書林本(1928)도 있다.

22) 앞서 양건식 자신이 번역한 『매일신보』의 <李白>을 수정해서 다시 실은 것.

조서>

이처럼 <이적선취초혁만서>가 단독으로 번역되거나 혹은 『금고기관』의 번역집 속에 포함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꾸준히 향유되어 왔다. 아마도 현전하는 것이 <이적선취초혁만서> 한역본(韓譯本)의 전부는 아닐 것이므로, 그 유통 범위는 위에서 확인되는 바보다 넓었으리라 본다. 이 번역본들의 내용은 대체로 원전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대의 일부 번역본에서 한국의 고대국가인 고구려·신라·발해를 비하하는 원작의 내용에 수정이 가해진 예가 있다.²³⁾

답번서담의 조선 내 수용 양상을 보여 주는 한 예로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아래 시가 있다.

<내가 좌채(左寨)²⁴⁾에 있으면서 글을 써 고시했더니 저들이 가까이서 들고서 서서히 물러나기에 기쁨에 이 시를 지었다.>

왕법이 부월처럼 삼엄하여, 교만한 오랑캐가 척독(尺牘)을 두려웠다.
오랑캐를 꾸짖은 이백을 알보고, 축 땅을 효유한²⁵⁾ 사마상여를 무람케 했네.
어찌 글이 좋았다 하리오? 오로지 가르치심을 받은 나머지일 뿐.
항강(項江)의 적을 무찌른 싸움터에, 장하여라 박동초여!
(박동초는 항강의 무사로, 용맹하고도 지혜로웠다. 해마다 방수(防守) 장령(將領)이 되어서 삼호(蔘胡)들을 많이 죽였다. 오랑캐가 그를 두려워하여 지금

23) 박상석(2018), 앞의 논문, 253~250쪽.

24) 좌채(左寨)는 강계(江界)에 두었던 것으로, 현종 11년(1845)에는 그 일부를 떼어 후주(厚州)에 소속시키도록 했다. (『國朝寶鑑』 권86, 현종 11년)

25) 한 무제 때 낭중장(郎中將) 당몽(唐蒙)이 야랑(夜郎)의 사신으로 임명된 뒤에 파촉(巴蜀)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면서 전시(戰時)의 군흥법(軍興法)을 적용하자 파촉 전역이 공포에 떨며 동요하였다. 이에 무제가 파촉 출신인 사마상여를 보내 당몽을 꾸짖고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하니, 사마상여가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격문을 지어 사태를 진정시켰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은 항강 건너기를 경계하고 있다.)²⁶⁾

조수삼이 글로써 오랑캐를 물리치고 그 기쁨을 노래한 시로, 자신의 공을 ‘오랑캐를 꾸짖은 이백을 알볼[嚇蠻非李白]’ 만한 것으로 표현했다. 1장에서 본 대로 유전백, 범정전의 비문 등에서는 이백이 ‘번국에 답하는 글을 썼다[爲和蕃書, 草答蕃書]’고만 표현했을 뿐, ‘오랑캐’, ‘꾸짖다’ 등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수당양조사전』에서도 편명을 ‘이태백이 선 채로 번국의 글을 휘갈기다(李太白立掃蕃書)’라고 했으며, 역시 ‘오랑캐’, ‘꾸짖다’ 등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만 이처럼 제목에 ‘오랑캐를 꾸짖는 글을 초하다(草嚇蠻書)’라고 했으며, 본문 중에도 ‘嚇蠻書’란 표현을 네 차례 썼다. 조수삼 시의 이 구절은 <이적선취초혁만서>를 전거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이백의 답변서답이 주로 <이적선취초혁만서>, 그것도 특히 『금고기관』의 것을 통해 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 이 『금고기관』의 <이적선취초혁만서>가 한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문학의 영역을 넘어선 국어학과 역사학의 장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발해에 관해 사적(史的) 담론에 개입하게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3장 2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6) <余在左寨, 作文告示, 彼人聞近漸退歸, 喜賦此詩>

王法森鉄鉞 驕奴畏尺書

嚇蠻非李白 喻蜀愧相如

豈謂文章好 惟承指授餘

項江鏖戰處 壯矣朴東初

(朴東初江之武士, 勇且智. 歲爲防守將領, 多殺蓼胡, 胡人畏之, 至今戒不過項江.)

- 趙秀三, 『秋齋集』卷之二『詩』, 41面. (한국고전종합DB)

3. <이적선취초혁만서> 답변서담의 쟁점

1) [中] 대고구려전(對高句麗戰)의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가상의 역사

<이적선취초혁만서>의 중심 이야기는 이백의 답변서담이고, 그 요지는 발해의 말글까지 통달한 이백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으로 당이 발해를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발해가 자국의 문자로 작성한 국서를 가져온 순간부터 당의 천자 이하 모든 신하가 큰 근심에 싸였으나 이백이 답서로써 발해를 준열히 꾸짖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멸시했던 세도가 양국충과 고력사를 함부로 부리며 비범함을 과시하자 발해의 국왕이 당에 항복을 하고 만다. 그런데 2장에서 본 대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배경이 되는 742년 당시는 발해와 당이 한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여서 이때 발해가 전쟁을 거론하며 당에 고구려의 구토(舊土)를 요구한다는 작품 내용은 역사적 정황과 맞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수당양조사전』의 답변서담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유독 상대 국가만큼은 거란에서 발해로 굳이 바꾼 것일까?

그 이전 상황을 보면, 발해가 성립 당시부터 당과 대립 관계에 있던 때가 많았고 732년 무왕(武王) 때에는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한 일도 있었다. 비록 738년에는 발해가 당의 책봉을 받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랑캐 나라로 치부하는 발해가 자국에 저항한 전력(前歷)이 못내 불쾌했을 수 있다. 이런 불유쾌한 감정을 씻어내기 위해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응징의 상대국을 발해로 교체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상대국을 발해로 설정한 이유의 일부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를 이해하자면 작품에서 계속하여 발해와 고구려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해당 부분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 발해국 대가독(大可毒)이 당나라 관가(官家)에게 글을 보내노라. 내가 고구려를 점령하고부터 우리나라와 가까워져서 변경의 군사들이 누누이 우리의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은 관가의 뜻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내 이제 참을 수 없어 사신을 보내어 강화케 하노니, 마땅히 고구려 일백칠십육 개 성을 우리나라에 양여하라. (중략) 만약 수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병사를 일으켜 시살할 터이니,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지 보겠는가?²⁷⁾

㉡ 하지장이 천자에게 아뢰되, “태종(太宗) 황제께서 세 번 고구려를 치시어 생명을 얼마나 희생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승리를 취하지는 못한 채 국고만 허비되었습니다. 천행으로 개소문(蓋蘇文)이 죽고, 그 아들 남생(男生) 형제가 정권을 다투어 (남생이) 우리의 향도(向導)가 되었습니다. 이에 고종(高宗) 황제께서 노장 이적(李勣)을 파견하고, 설인귀가 백만 용병을 통솔해 크고 작은 백번의 전쟁 끝에 겨우 진멸했습니다. 지금은 태평 시절이 오래고 장수도 병사도 없으니, 혹여 창과 방패가 다시 동한다면 반드시 이기리라 보장하기 어렵고, 병화(兵禍)가 이어지면 어느 시절에 그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하오니 성(聖) 황제께오선 헤아리소서!²⁸⁾

㉢ 고구려가 명(命)에 거역했기 때문에 천자(天子)의 친정(親征)이 거듭 가해져 구백 년이나 이어져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으니, 그 어찌 하늘을 거스른 잘못에 대한 정벌이요, 정대(正大)함의 밝은 비춤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너희는 바다 밖의 조그만 나라로 고구려의 속국[高麗附國]이요, 중국에 비하면

27) 渤海國大可毒書達唐朝官家. 自你占了高麗, 與俺國逼近, 邊兵屢屢侵犯吾界, 想出自官家之意. 俺如今不可耐者, 差官來講和, 可將高麗一百七十六城, 讓與俺國. 俺有好物事相送. (中略) 若還不肯, 俺起兵來廝殺, 且看那家勝敗? (馮夢龍 撰, 彭詩琅 主編, 『警世通言』上, 中國戲劇出版社, 2002, 99~100面)

28) 賀知章啓奏道, “自太宗皇帝三征高麗, 不知殺了多少生靈, 不能取勝, 府庫爲之虛耗. 天幸蓋蘇文死了, 其子男生兄弟爭權, 爲我向導, 高宗皇帝遣老將李勣, 薛仁貴統百萬雄兵, 大小百戰, 方纔殄滅. 今承平日久, 無將無兵, 倘干戈複動, 難保必勝, 兵連禍結, 不知何時而止. 願吾皇聖鑒!” (위의 책, 100面)

하나의 고을에 불과하며 군사며 말이며 군량은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만약 사마귀가 성내듯 할 뿐이요, 거위가 교만하듯 불손하다면 천병(天兵)에게 명이 한 번 내리는 대로 유혈천리(流血千里)하여 군주는 힐리기한(頡利可汗, 돌궐 왕)의 사로잡힘과 같이 되고, 나라는 고구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²⁹⁾

인용문 ㉠은 발해가 당에 보낸 국서의 일부이다. 여기서 발해 왕은 당이 고구려 땅을 차지한 이후로 당의 군사들이 국경을 자주 침범한다는 것을 구실로 고구려의 176개 성을 자국에 양여하라고 요구한다. 고구려 전역에 176개의 성이 있었으니, 이 말은 고구려의 옛 땅 전부를 발해에 반환하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발해 내부에 고구려의 실지(失地)를 회복하려는 강한 동기와 상당한 명분이 존재했을 개연성을 전제한 것이요, 그것은 고구려·발해의 계승성 내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의식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용문 ㉡은 발해의 국서를 파악하고 나서 천자 현종이 신하들에게 방책을 묻자 하지장이 간한 내용이다. 여기서 하지장은 과거 당과 고구려 간에 있었던 전쟁, 즉 태종(太宗)과 고종(高宗)의 고구려 원정(遠征)을 천자에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태종의 전쟁이 ‘승리를 취하지 못한 것’, 고종의 전쟁이 ‘겨우 성공했던 것’에 비추어 발해와의 전쟁에 매우 신중해야 함을 하지장은 역설한다. 여기 언급된 여당전쟁(麗唐戰爭)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한 사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인용문 ㉠에 반영된 발해·고구려의 관계성으로 미루어보더라도, 당과 발해의 전쟁은 과거 당과 고구려 간 전쟁의 연장으로 상상된 것이다.

29) 高麗拒命，天討再加，傳世九百，一朝殄滅，豈非逆天之咎征，衡大之明鑒與？況爾海外小邦，高麗附國，比之中國，不過一郡，土馬芻糧，萬分不及。若螳怒是逞，鵝驕不遜，天兵一下，千里流血，君同頡利之俘，國爲高麗之續。(위의 책, 102면)

인용문 ㉔에서는 발해를 일러 ‘고구려의 속국[高麗³⁰附國]’이라고 했다. 껍질의 뜻이 있긴 하지만,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직접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발해도 당에 도발하면 고구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앞에서 살펴 온 내용을 볼 때, 역시 이 말에는 고구려가 발해에 역사상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고구려·발해의 연속성 및 동질성에 대한 의식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 발해와 고구려를 동일시하는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았다. 작중 발해의 도발은 허구이고, 여당전쟁에 관한 거듭된 언급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백의 영웅적인 행위로 발해를 물리치는 소설 속 내용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그것은 중국 천자들의 수차례 친정을 좌절시킨 고구려에 상상의 설욕을 하는 것이다. 이백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보니 그의 생존 연대에 맞게 고구려 당국(當國)이 아니라 그를 이은 발해를 상대국으로 설정하고, 이 발해를 굴복시키는 서사를 통해 마치 자식을 응징함으로써 그 부모에게 당한 일을 보복하는 듯한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흡사 우리의 고소설 <임진록>, <박씨전>이 그러하듯, <이적선취초혁만서>도 역사를 새롭게 상상하여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열패감을 극복하려 한 가상의 역사이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당태종(唐太宗)의 고구려 원정만을 언급했지만, 실은 그에 앞서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 친정을 세 차례 단행했다가 모두 실패했고, 또 그보다 앞서서는 그의 부친 수문제(隋文帝)가 고구려 원정을 벌였다가 실패했다. 수양제의 고구려 친정은 612-614년, 당태종의 고구려 친정은 645-648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적선취초혁만서>

30) 『구당서(舊唐書)』 등 중국의 옛 문헌에서도 ‘고구려’를 ‘고려’로 칭했다.

의 답변서담이 배경으로 한 742년은 그로부터 약 백 년 뒤요, 이 작품이 창작된 천계연간(1621-1627)은 그로부터 무려 천 년 뒤이다. 이처럼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소설을 통해 고구려와의 전쟁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구해 보려 했다는 것은 고구려를 상대로 한 이들 전쟁에서 비롯되는 중국 측의 콤플렉스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이 콤플렉스란 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시작된 2002년에 중국인 학자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 고구려 통사(通史)라고 인정할 만한 책이 나왔다.³¹⁾ 그중 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관한 서술의 일부를 보기로 한다.

『자치통감』(『唐紀·太宗中』)은 태종이 전망한 전사를 제사하기 전에 또 한 마디가 있는데, “황제가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한탄하여 말하기를 ‘만일 위징(魏徵)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걸음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이다. 태종은 제1차 고구려 정벌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여기고 매우 후회하였으며 만약 위징이 살아 있다면 고구려 정벌을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략) 후에 이것을 이유로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큰 오해인 것이다. 첫째,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원 647년과 648년의 두 차례 고구려 정벌이 없었을 것이다. (중략) 둘째, 태종이 한탄한 “만약 위징이 있었다면”은 이번 정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정벌의 손실이 없었다는 말이다.³²⁾

윗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중국의 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太宗 貞觀 19年)에는 당태종이 1차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고 나서 “만일 위

31) 耿鐵華 著, 朴倉培 譯,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上, 고구려연구재단, 2004 중 ‘옮긴이의 글’, 3~5쪽.

32) 위의 책, 417~418쪽.

징(魏徵)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걸음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魏徵若在, 不使我有是行也.)”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사실(史實)로 보나 어의(語義)로 보나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의 실패를 한탄한 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글은 이런 상식적인 이해에 반론을 제기하며, 두 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다. 첫째는 당태종이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고구려 정벌을 단행했으므로 그는 고구려 정벌을 후회한 게 아니란 것이다. 둘째는 태종이 한탄한 대상은 고구려 정벌 자체가 아니라 정벌에서 얻은 손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서에 기록된, 태종이 했다는 말의 속뜻을 임의로 단정하는 것부터가 문제거니와 그 판단이 매우 억지스럽다. 위 인용문의 전후에서도 저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게 아닐뿐더러 도리어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을 펼치고 있다.

위의 글은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전(高句麗戰)에서 고배를 마신 일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크고 질긴 콤플렉스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적선취초혁만서>가 창작된 때가 수양제·당태종의 고구려 정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위의 글이 작성된 때보다는 오히려 그와 근 사백 년이나 가깝다. 어떤 면에서는 고구려 전에 의한 중국인으로서의 콤플렉스가 지금보다 더욱 성했을 것이다. 위의 글이 이 콤플렉스를 학문적 논리의 형식을 빌려 해소하려 한 데 비해 <이적선취초혁만서>는 그것을 소설적 상상을 통해 해소하려 했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고구려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발해를 응징하는 내용으로만 구현된 것은 아니다.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취한 앞의 인용문 ㉠을 보면 발해가 당에 ‘고구려의 176개 성을 양여하라’고 한다. 마치 당이 고구려의 전역을 점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나, 여당전쟁을 거쳐 당이 병합한 지역이 실은 고구려 전체 영토 중의 일

부일 뿐인 요하 유역과 요동 반도 일대에 불과했으며, 그 지역의 지배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³³⁾ 또 인용문 ㉠에서는 ‘고종 황제가 크고 작은 백 번의 전쟁 끝에 겨우 고구려를 진멸했다’고 하고, 인용문 ㉡에서는 ‘고구려가 명에 거역했기 때문에 천자의 친정이 거듭 가해져 구백 년이나 이 어저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다’고 했다. ‘겨우 진멸했다[方纔殄滅]’고 해서 언뜻 솔직한 표현 같아 보이는 이 언술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당이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교묘한 과장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는 사실적이라기보다 선언적인 서술이며, 여기에도 역시 중국 측의 중국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표방하여 대고구려전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2) [韓] 중국의 발해 사관에 맞선 대응의 방편

일찍부터 한국의 학자들이 <이적선취초혁만서> 중 답변서담의 내용을 간간히 언급해 왔다. 어떠한 맥락과 배경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어 왔고, 그 의의 혹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 짚어 보려고 한다. 해당 논의 중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국어·역사학자 권덕규(權惠奎)의 저서 중에 있는 다음 글로 보인다.

唐의李白은 天子라하도록 詩文章이요 無雙의才子라 今古奇觀에니르바 玄

33)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에서 신라의 영토도 아니고, 당에 의해 병합되지도 않은 곳으로 북부여성과 신성 등 여러 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당이 고구려에 승리를 거둔 뒤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었으나 676년에는 이를 요동으로 물리게 되었다. 이곳에서 당은 고구려 유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보장왕과 그의 손자인 보원(寶元), 아들인 덕무(德武)를 차례로 조선군왕, 안동도독으로 임명하여 간접적인 통치를 했다.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바다, 1998, 504~507쪽)

宗의御座前에 滿朝文武가一字未曉하야 愕然呆然한판에 濛濃醉眼으로 一見 翻讀하였다는 彼의所謂蕃 곳우리大渤海의國書(생략³⁴) 字는 果然小說의虛構의文入字일가 아니라渤海는 句麗의舊疆을復하고 山東半島를征服하고 句麗의耻辱을 雪하든大朝라 文入字의無할理 | 的無하며 더욱그文意의然함을 보아 漢族의自家蔽欠으로 虛構인듯이 傳한文入字로되 實在로아니볼수없는 데 近年에咸關以北에서 渤海字(或女眞字)碑가 往往히發見되매 다시渤海 文의有無를 議論할까답이없으며……³⁵)

권덕규는 조선 이전의 역대 왕조에 문자가 있었는가를 짚어 오는 중에 발해에 이르러서는 『금고기관』의 <이적선취초혁만서>를 거론한다. 2장 2절에서 확인한 대로 한국에서는 이 작품이 『경세통언』이 아닌 『금고기관』을 통해서 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과 통하는 점이다. 그는 <이적선취초혁만서> 중의 답변서답과 발해 문자로 작성됐다는 국서를 소개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소설적 허구의 문자일까?”라고 자문한 뒤 “아니라.”라고 단언한다. 그 근거로는 고구려의 구토를 회복하고 당의 산둥반도(등주)를 공격하며 고구려의 설욕을 할 만큼 발해가 큰 나라였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한족(漢族)이 이 사실을 자신들의 흠으로 알고 덮어 두기 위하여 허구인 듯이 전했다고 한다. 다음에 볼 것은 바로 이듬해에 신채호(申采浩)가 신문에 기고한 사론(史論)이다.

玉塵叢談에나 今古奇觀에 同一한 記錄이 잇스되 그 大略이 下와 갓흐니 唐의 天寶 年間에 渤海의 國書가 唐에 일으매 唐의 舉朝에 그 文字를 解하는 이 업서 唐玄宗이 매우 걱정하다가 秘書監 賀知章이 李太白을 薦하야 金鑾殿

34) 생략한 내용은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발해가 당에 보낸 것으로 나오는 국서의 전문(全文).

35) 權憲奎,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大正12(1923).5.25 중 第53課 「古代朝鮮文의有無」, 165쪽.

에 들어와 이 글을 解讀하고 그 答書를 草할새 高力士가 靴를 脫하고 楊貴妃가 墨을 磨하였다 하니 이는 아마 渤海의 國書가 吏讀 或 口訣의 渤海字로 되었으므로 唐人이 이를 解讀하지 못함이오 李太白의 答書도 渤海字로 한 것인 故로 그 글월이 李太白集에 掲載되지 못함이라. 或曰 右의 事實이 新舊 兩唐書에 보이지 안코 오즉 小說 中에 보일 뿐이니 엇지 遵信하리오? 하나 어느 때는 小說이 或 史冊보다 遵信할 價値가 있는 것이라. 李太白全集에 據하면 樂史의 李翰林別集 序에 같오대 『唐玄宗이 李太白을 召하여 和蕃書를 草할새 思怒河와 갓했다』 하며 秦建의 李君碣記³⁶⁾에는 『玄宗이 李白을 翰林 待詔로 召하여 和蕃書를 草하였다』 하며 范傳正의 序文에도 『李太白이 答蕃書를 草할새 辯이 懸河와 갓했다』 하였스니 그 稱한 바 和蕃書와 答蕃書는 다 渤海에 答한 國書를 指한 것이라. 무릇 李太白 平生의 得意가 이 國書 答章의 作이어늘 엇지하여 新舊 兩唐書에는 李太白을 召하여 楊貴妃를 讚한 淸平調를 지었다 할 뿐이오 渤海에 答한 國書의 一件에는 말도 없으며? 李太白全集에는 그 答書한 事實만 記하고 또한 그 答書는 記치 안하였스며? 唐文苑英華나 全唐文抄 等 名書에는 李太白의 尋常한 詩와 文까지 收錄하면서 도리쳐 그 得意作인 渤海에 答한 書를 빼앗느냐? 唐玄宗의 天寶 年間은 渤海 武帝의 後요 文宗의 初라. 武帝의 때에 海軍 大將 張文休를 보내어 山東省에 들어가 唐의 登州 刺史 韋俊을 죽이고 遼東 等地에서 唐將 高髙 等の 大兵을 陷落하며 渤海의 國威가 唐을 壓한 故로 渤海가 드대어 前例를 破하고 渤海字로 쓴 國書를 唐에 보내매 唐玄宗의 君臣이 卒然히 그 글을 解讀할 이가 업서 걱정하다가 마참 渤海字의 學者 李太白을 어더 이를 草答하여 當時에 外交의 難題를 解決하게 되었스나 그러나 支那 古代에 남의 글로 國際에 往來한 일이 업다가 이제 渤海에 對하여 新例를 開한 것이 無限의 羞恥인 故로

36) 청나라 王琦가 輯注하여 1758년에 완성한 『李太白全集』에 수록된 <唐故翰林學士 李君碣記>에는 ‘尙書膳部員外郎劉全白撰 朝議郎行當塗縣令顧遊秦建’, 즉 ‘상서·선부 원외랑 유전백이 찬하고, 조의랑으로 당도현령 벼슬을 하는 고유진이 (비를) 세우다’라고 되어 있다. (李白撰, 『李太白全集』, 河洛圖書出版社, 1975, 714面) 신채호는 이 글귀의 끝 두 글자 ‘秦建’을 갈기의 저자 이름으로 오해한 듯하다.

唐書에는 그 事實을 빼앗으며 李太白全集에는 그 事實은 模糊하게 썼으나 그 文字는 掲載치 안 함인가 하노라.³⁷⁾

이 글에서도 조선 문자의 역사를 해설하는 가운데 이백의 답변서답을 들어 발해에 문자가 존재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 답변서답이 『금고기관』에 전한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그 역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것을 가리킴이 분명하다.³⁸⁾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야기의 출처로 ‘玉塵叢談’을 추가로 들었는데, 그와 같은 제명의 책이나 글을 중국과 한국, 양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실존한 기록물인지 혹은 신채호의 착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어쨌든 그 내용은 『금고기관』의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³⁹⁾

37) 신채호,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동아일보』, 1924.1.1, 1면. (띄어쓰기, 마침표는 필자)

38) 그런데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이백이 답서를 쓸 때 양국충이 먹을 갈았다고 한 것과 달리, 신채호의 글에서는 양귀비가 먹을 갈았다고 했다. 이백을 위해 양귀비가 먹을 갈았다고 한 문헌이 있는데(『靑瑣高議』 後集 卷之二 <李太白-跨驢入華陰縣內> 등), 신채호의 기억에서 착종이 있었던 것 같다.

39) 『환단고기(桓檀古記)』의 『太白逸史』 <蘇塗經典本訓>에도 이 ‘玉塵叢談’이 등장한다. ‘李太白全書玉塵叢談云渤海國有書於唐舉朝無解之者李太白能解而答之’(檀檀學會 編, 『桓檀古記』, 光吾理解社, 1979, 190쪽) “李太白全書玉塵叢談’에 이르기를, 발해국에서 당에 글을 보냈는데 온 조정에 이해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태백이 능히 해독하여 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그것은 <이적선취초혁만서> 답변서답의 핵심에 해당한다. 『환단고기』의 범례에 따르면 『태백일사』는 연산군, 중종 연간의 인물 이백(李陌, 1455-1528)이 편찬한 것이므로, 신채호가 『태백일사』나 관련 텍스트를 참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역으로 신채호의 이 글을 『환단고기』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환단고기』의 최초 출판일은 1979년이고, 그 직전까지 책의 내용을 계속 수정했으며, 거기에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사학자들의 저작물도 활용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근철, 『대중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桓檀古記)』 진위 문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仙道文化』 16, 2014; 장영주, 『『환단고기(桓檀古記)』 성립 과정: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인학대 석사논문, 2017) 신채호의 글에서 각각 거론한 ‘李太白全集’과 ‘玉塵叢談’이 ‘李太白全書

신채호의 이 글에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설명이 권덕규의 글에 비해 길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논지나 논리는 거의 같다. 신채호 역시 무왕(武王)이 등주를 공격한 일을 들어 것처럼 발해가 당을 압도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왕(文王) 때에 와서 당에 전하는 국서를 자신들의 문자로 쓰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또 중국으로서는 그것이 전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다른 사서나 기록에서는 이 일을 모호하게 기술하고, 다만 소설에서 자세하게 서술했다고 한다.

권덕규와 신채호의 논의는 이후 다른 학자들에 의해 수용, 확산되었다. 국어학자 김윤경(金允經)은 <朝鮮文子の 歴史的 考察>이라는 기고문에서 위에 인용한 두 사람의 글에서 골자를 뽑아 그대로 옮긴 뒤에 “이상 권, 申 兩氏이 견해는 적절하다고 共鳴하는 바라 다시 蛇足을 더할 필요는 없으나 新舊唐書에 빼어버린 이유는 외국문자의 새 예를 끼침을 부끄럽게 생각함보다도 늘 무시하여 오던 외적에게 모욕을 당함을 부끄럽게 앞으로 그리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⁴⁰⁾ 역사학자 계봉우(桂奉瑀)의 필사본 사서(史書) 『조선역사』(1935년도 집필)에도 흡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 책에서도 이백이 발해자(渤海字)로 화번서(和蕃書)를 초(草)한 사실이 ‘옥진총담’과 ‘금고기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일은 발해의 위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⁴¹⁾ 근래에도 권덕규 등의 논설과

玉塵叢談’으로 와전·통합되어 『환단고기』에 들어간 것 같다. ‘李太白全書’라는 제명의 책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도 찾을 수 없다.

40) 金允經, <朝鮮文子の 歴史的 考察> 중 ‘正音以前の 조선글’, 『동광』 23, 1931.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1) “渤海字는 李太白이 和蕃書를 草하였다는 거지에서 비롯오 그 威勢를 나타내었다. 그때는 唐의 天寶年間인데 渤海의 文王이 그 國字로써 만든 國書를 唐에 보낸 일이 있었다. 唐의 舉朝가 그 文子를 아는자가 업는 중에 오직 李太白이 그것을 能히 解讀하고 答書를 草하였다는 事實이 玉塵叢談과 今古奇觀等 漢人の 紀錄에 載在하였다. 그러나 渤海字의 原形은 지금에 遺傳한것이 없으며 비록 없다하더라도

상통하는 내용의 기사가 일간지들에 실린 적이 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역사학자 김광석 교수의 발해와 관련한 몇 가지 주장을 소개한 것으로, 그중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해는 당시 나라명에 ‘국(國)’을 사용했다. 이는 자주독립 공동체였다는 의미이다. 당시 발해문자에 능통해 발해 외교문서의 번역을 맡기도 했던 시선(詩仙) 이백(李白)도 발해를 고려(고구려의 의미)나 백제로 부르며 외국으로 취급했다는 기록이 이백의 시문집 옥록⁴²⁾총담(玉塵叢談)에 기록돼 있다. 이백의 혁만서(嚇蠻書)에선 또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습관적으로 고려, 백제로 칭했다는 말이 나온다.⁴³⁾ 특히 발해가 독자적인 신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은 어느 나라에도 예측되지 않은 자주성을 갖춘 국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⁴⁴⁾

김광석 교수 역시 발해가 자국의 문자로 외교 문서를 썼고 이것을 이백이 번역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발해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의 출처로 ‘옥진총담’과 ‘혁만서’를 언급하고 있다. ‘혁만서’는 <이적선취초혁만서>를 가리키는 것일 터이다. 김광석 교수는 그의 박사 학위논문에서도 “『玉塵叢談』云, 渤海國送唐廷書信, 其時僅李白能識.”이라고 하고, 그 각주에 다만 ‘李白, 『玉塵叢談』’이라고 기재했다.⁴⁵⁾ 그

渤海字로불어 做造된 契丹字와 女眞字가 있는즉 그것에서 渤海字의 本樣을 알기 어렵지 않다.”(桂奉瑀, 『北愚 桂奉瑀 資料集(2): 『조선역사』·『동학당폭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155~156쪽)

42) ‘록’은 ‘진’의 오자.

43)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高句麗’를 ‘高麗’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당나라 사람들이 발해를 ‘고려’, ‘백제’로 칭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44) 정주호 기자, <김광석 교수 “이태백도 ‘발해를 외국으로’ 취급했다” 주장>, 『한겨레』(인터넷 판), 2006.9.18.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에 『국민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45) 金光錫, 『渤海族의 形成及其社會形態分析』, 《台灣系》 香港遠東學院歷史研究

역시 ‘옥진총담’이라는 책을 실제로 보지는 못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글들은 모두 발해에 고유의 문자가 있었음을 논하는 가운데 그 근거로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발해가 자국 문자로 당과 국서를 주고받은 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인지라 논자들은 그 내용이 허구만은 아님을 보이려고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전대(前代)의 일을 들어 당시 발해의 국세가 당을 능가할 만큼 매우 강성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논의의 역점은 오히려 발해가 강국이었다는 데에 있는데, 하지만 그 논리에 상당한 비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신채호 이하로는 답변서담의 출처로 ‘옥진총담’을 추가하면서 그 내용에 사실성을 더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이 책의 실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채호가 서명만 제시한 이 자료를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이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담을 발해의 강한 국력과 자주성에 무리하게 결부시키려는지는 사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중국과 일본의 부당한 발해 사관(史觀)에 대한 대응의 방편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만주 침략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사(中國史)와 분리해 만주사(滿洲史)를 창출하고 발해를 그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인들은 그 대응으로 숙신-발해-청으로 이어지는 역사 계보를 설정하여 발해를 중국사에 귀속시키고자 했다. 과거 발해의 영토를 포함한 중국의 동북부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영토였음을 주장해 제국주의 일본이 이곳으로 침략해 오는 것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숙신-발해-청의 계보가 『발해국지(渤海國志)』(唐晏, 1919) 등 중국의 발해 관련 사서에 담기고, 이후 중국의 학자 김육불(金毓黻)에게로 이어졌다. 그의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1934)은 발해에 관한 중국·한국·일

所博士論文, 1991, 210, 239面.

본의 자료를 집대성한 역작으로, 발해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김육불이 견지한 발해 사관의 요체는 발해사가 중국 동북 지방사(地方史)의 하나라는 것이며, 그와 같은 입장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르기까지 지속, 강화되고 있다.⁴⁶⁾

권덕규와 신채호가 앞의 글을 집필하던 때에 중국은 발해를 그들의 동북사(東北史)에 편입하려 해 왔고, 그에 앞서 일본은 또한 그들 나름의 타산 하에 발해를 만주사(滿洲史)에 편입하려 해 왔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한 방편으로 논자들은 이백의 답변서답을 빌려 발해의 국력과 자주성을 역설하고 궁극적으로는 발해를 한국사에 확고히 귀속시키려 했던 것이다.⁴⁷⁾ 김광석 교수의 경우, 그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기사 모두(冒頭)에서 김교수가 “발해사가 중국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라고 하여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답으로써 그가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 중국의 발해 사관이 우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背馳)되고, 더욱이 중국 측의 주장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그들의 발해 사관이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답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46) 김종복,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 민국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68, 2018; 동북아역사재단 편(2007), 앞의 책, 432~439쪽.

47) 김종복은, 1907년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채호의 『대동역사(大東歷史)』에서 우리나라의 국명으로 ‘동북국’을 사용한 데에 당시 발해를 중국이 그들의 동북사로 취급하고, 일본은 그들의 만주사로 취급하는 것에 대응해 발해가 한국사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김종복,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南北國論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79, 2017, 197~198쪽)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답에 대한 신채호의 논의도 이와 동례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첫째, <이적선취초혁만서> 내용의 사실성이 문제가 된다. 2장에서 상론한 대로, 이백의 답변서담은 본래 이백이 이국의 국서에 그들의 문자로 답을 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수당양조사전』에 와서 그 이국을 거란으로 특정하고 사건을 구체화했으며,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되 거란을 발해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기한 대로 <이적선취초혁만서>의 이러한 설정은 작품에서 시대 배경으로 삼은 때의 발해와 당, 양국 간의 관계에 비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담은 소설의 일부일 뿐이다.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다른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발해가 한국의 고대 국가임을 역설한다면 이 주장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둘째, 설혹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담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발해의 국력과 자주성을 논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일부만을 취한 것이다. 이 이야기 중 발해에서 자국의 문자로 당에 국서를 보냈다는 부분만 보면 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해의 강성했던 힘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 전체를 보면, 발해의 신하와 국왕이 이백의 기세에 압도되어 결국 당에 항서를 올리고 조공을 바친다.⁴⁸⁾ 이런 이야기가 발해의 국력이나 자주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48) 그리고 아래의 관련 부분 서술을 보면 발해의 사신과 임금을 아주 어리숙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李白道：“小邦失禮，聖上洪度如天，置而不較，有詔批答，汝宜靜聽！”番官戰戰兢兢，跪於階下。

李白重讀一遍，讀得聲韻鏗鏘，番使不敢則聲，面如土色，不免山呼拜舞辭朝。

番使點頭而別，歸至本國，與國王述之。國王看了國書，大驚，與國人商議：“天朝有神仙贊助，如何敵得？”寫了降表，願年年進貢，歲歲來朝。

(馮夢龍 撰(2002), 앞의 책, 101~103面)

는 아무래도 어렵다. 애초에 『수당양조사전』에서 거란이 자국의 문자로 당에 국서를 보냈다고 한 것은 거란의 위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란 문자까지 통달하고 있는 이백의 뛰어난 능력을 그려 보이기 위함이었으며, <이적선취초혁만서>는 그 거란을 발해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이적선취초혁만서>는 결국 그러한 이백에게 발해가 굴복하는 이야기이다. 그 제목부터가 이백이 붓끝으로 발해를 꾸짖었다는 의미이다. 이 이야기를 무리하게 사실로 간주한다면 우리에게 도리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적선취초혁만서>의 허구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임무로 삼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왜 당이 발해를 꾸짖는 허장성세를 하였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중국 입장에서 당과 대립했던 발해를 육보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수·당 대에 천자들이 수차례 고구려 정벌을 단행했다가 실패한 콤플렉스를 씻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발견한, 고구려·발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도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자국의 속국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두 나라 간의 계승성을 영토, 종족,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부정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문학에는 정치적으로 표명된 태도와 다른 대중의 잠재적인 의식이 반영될 수 있으며, <이적선취초혁만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에 예속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경쟁한 자주적인 국가였으며, 또한 그 두 나라 간에 계승성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국인들 스스로의 시각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작품의 실상에 부합할뿐더러,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49) 한규철, 「고구려 발해의 상관성 연구와 과제」,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발해연구』 31, 2008.

논리가 부당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선학들의 해안으로 이백의 답변서 이야기가 발해를 둘러싼 한·중의 역사 대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로써 일찍이 부각되었다. 다만 앞으로는 정사(正史)는 정사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자료의 실상에 맞는 적합한 해석을 가하여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경세통언(警世通言)』,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이적선취초혁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에 담겨 있는 발해와 고구려에 대한 인식 및 그 함의를 살폈다. 그리고 이 작품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부여한 의미를 알아보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논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은 <이적선취초혁만서>의 핵심인 답변서담(答蕃書談)의 전승 양상을 짚어 보았다. 범전정(范傳正) 등이 이백 사후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쓴 그의 비문(碑文)을 보면 ‘和蕃書’, ‘答蕃書’ 등의 구절이 나온다. 다만 이백이 이국의 국서에 답을 했다는 이 간략한 내용이 <이적선취초혁만서>에 와서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바뀌어 있다. 발해가 자국의 문자로 작성한 국서를 전달하며 고구려의 옛 영토를 요구하자 이백이 발해 문자로 답서를 써서 상대를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의 사건화는 앞서 나관중(羅貫中)이 지은 소설 『수당양조사전(隋唐兩朝史傳)』 중에 보인다. 단, 여기서는 국서를 전한 나라가 발해가 아닌 거란으로 되어 있다. 서너 글자에 불과한 짧은 기록이 소설 『수당양조사전』에 와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었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거란을 발해로 바꾸고 그에 맞춰 세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 <이적선취초혁만서>의 답변서 이야기이다.

양국의 외교사에 비취 볼 때 이백이 관리로 활동하던 시기에 발해가 당에 전쟁을 경고하는 국서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왜 굳이 거란을 발해로 바꾸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작품을 보면 발해의 국서에 직면해 당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거둬 패했던 일을 거론하고, 수차례 고구려와 발해를 연계시켜 언급하고 있다. 발해도 건국 초기부터 당과 대립했던 역사가 있거니와, 특히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해를 응징하는 상상력으로 수·당 대에 중국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좌절했던 콤플렉스를 해소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금고기관』 혹은 <이적선취초혁만서> 단독의 번역물 등을 통해서 이 작품이 수용되어 왔다. 신채호 등 몇몇의 학자는 <이적선취초혁만서>를 두고 발해가 자국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문자로 당에 국서를 보내고 답서를 받을 만큼 국력이 강성했다고 논했다. 이는 다분히 발해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 측의 역사 공작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적선취초혁만서>는 결국 발해가 이백의 답서에 압도당해 당에 굴복하는 이야기이다. 동북공정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중국의 역사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으나, <이적선취초혁만서>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거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실상에 맞게, 다른 각도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가상의 역사인 <이적선취초혁만서>에서 고구려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 계승국인 발해를 통해 해소하려 한 점을 읽어 이로부터 일찍이 중국인들 스스로 자각한 고구려와 발해의 자주성 및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문헌

<자료>

- 桂奉瑀, 『北愚 桂奉瑀 資料集(2): 『조선역사』·『동학당폭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1~539쪽.
- 權惠奎,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1923, 1~202쪽.
- 檀檀學會 編, 『桓檀古記』, 光吾理解社, 1979, 1~279쪽.
- 趙秀三, 『秋齋集』 (한국고전종합DB)
- 金允經, <朝鮮文子の 歴史的 考察> 중 '正音以前の 조선글', 『동광』 23, 1931.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申采浩,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동아일보』, 1924.1.1, 1면.
- 古本小説集成 編委會 編, 『隋唐兩朝史傳』 下(『古本小説集成』 347卷), 上海古籍出版社, 1990, 1~549면.
- 李白 撰, 『李太白全集』, 河洛圖書出版社, 1975, 1~916면.
- 馮夢龍 撰, 彭詩琅 主編, 『警世通言』 上, 中國戲劇出版社, 2002, 317~634면.

<저서>

- 김용만, 『고구려의 발견: 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 바다, 1998, 1~552쪽.
- 동북아역사재단 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1~477쪽.
- 안치(安旗) 저, 신하운·이창숙 역, 『(영원한 대자연인) 이백』, 이끌리오, 2004, 1~447쪽.
- 耿鐵華 著, 朴倉培 譯,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上, 고구려연구재단, 2004, 1~460쪽.

<논문>

- 김 영, 『명대 백화단편소설 『李諡仙醉草嚇蠻書』 번역필사본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106, 2017, 271~291쪽.
- 김종복,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南北國論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79, 2017, 173~208쪽.
- _____, 『중국 근대의 발해사 인식: 民國시대의 渤海三書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68, 2018, 3~32쪽.
- 박상석, 『白華 梁建植의 『新譯 今古奇觀』 연구』,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46, 2018, 239~272쪽.

이근철, 「대종교 경전으로 본 『환단고기(桓檀古記)』 진위 문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仙道文化』 16, 2014, 101~131쪽.

장영주, 「『환단고기(桓檀古記)』 성립 과정: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17, 1~112쪽.

한규철, 「고구려 발해의 상관성 연구와 과제」, 고구려발해학회, 『고구려발해연구』 31, 2008, 9~32쪽.

金光錫, 「渤海族의形成及其社會形態分析」, 《台灣系》香港遠東學院歷史研究所博士論文, 1991, 1~331面.

何念龍, 「簡論《李謫仙醉草嚇蠻書》的文化意義」, 『樂山師範學院學報』第22卷 第8期, 2007, 11~14面.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of Li Bai(李白)'s Reply to a Foreign Country
: Focusing on historical & political issues of Korea and China related to that

Park, Sang-seok

The concise content of 李白's 'writing a reply to a foreign country(草答蕃書)' was transmitted to various literature, and then it was embodied as a concrete event in the late Ming(明末) novel <li-zhé-xiān-zuì-cǎo-xià-mán-shū(李謫仙醉草嚇蠻書)>(included in the 『警世通言』 and 『今古奇觀』 as well). I found out that such a detail as a novel was already made in Luo Guan-zhong(羅貫中)'s novel 『suí-táng-liǎng-cháo-shǐ-chuán(隋唐兩朝史傳)』, and that <李謫仙醉草嚇蠻書> changed the foreign country from Kitan(契丹) to Balhae(渤海), accepting its contents. In this novel, when an envoy of 渤海 delivers a national letter written in its own language and demands that territory taken over by Tang(唐), 李白 frustrates the request by writing a reply, 'hyek-man-seo(嚇蠻書)' in 渤海's letter also. Why did <李謫仙醉草嚇蠻書> set the other country in 渤海? In this novel, 渤海 asked for the old land of Goguryeo(高句麗), and when the 渤海's envoy came, the officials of 唐 dynasty reminded of the hardships & frustrations that Taejong(太宗) suffered during the war with 高句麗. And in his '嚇蠻書', 李白 warned that 渤海 would eventually follow the train of 高句麗, which had been destroyed by 唐. The intention of this novel is to resolve the complex of China that was caused by the failure of several times in the war with 高句麗 through the fictional history which made 渤海, a country that succeeded 高句麗 and existed at the time of 李白, appear. Several Korean scholars including Shin Chae-ho(申采浩) have regarded the contents of <李謫仙醉草嚇蠻書> as true, and have mentioned that 渤海 was an independent and strong nation based on the fact that 渤海 had diplomacy with 唐 in its own language. However, because 渤海 and 唐 maintained a friendly relationship in the period when the story unfolds,

the contents that 渤海 threatened 唐 by a national letter were not realistic, and unlike the viewpoints of scholars in the past, this is the story that 渤海 finally surrendered to 唐 and paid tribute.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that the Chinese works themselves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close connection or succession between 高句麗·渤海 and the perception of the fact that 高句麗 competed fiercely with 唐 as an independent country. This is because it is not only true to the reality of the work, but it will also help to establish the right recognition of ancient history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李謫仙醉草嚇蠻書, 警世通言, 今古奇觀, 答蕃書(和蕃書), The War between Goguryeo(高句麗) and Tang(唐), Balhae(渤海), Northeast Project(東北工程)

논문투고일 : 2019.09.29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